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놓고 가는데는 이유없이 무조건 예요”

15면에서 계속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형편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다 나올 권리가 있어서 나왔고, 나왔으니 또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리를 알고 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서 육조스님은 내 불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니까, 내 불성이 어떠한 줄 어떻게 알았으니까, 내 불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니까, 내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물려서 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고 깨끗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의 그런 신념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러는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이며 이 생사윤회 바퀴에 끌려서 광생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당당하고 쾌거있게 사십시오.

르스님처럼 되고 싶은데...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자기가 입력한 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출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입력하려면 크게 입력해서 크게 출력하자. 이생에 몸 벗기 전에 꼭 르스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요. 분명히 자성 불이 있다고 했으니 이런 입력을 하면 분명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입력을 하고 그 경우에는 내가 판단을 하고 안하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할 때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문이 막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도 불성이 있고 저 스님도 불성이 있으니까 일체불보이 있고 일체선지식이 있다면 다 통하겠지. 이생에 못하면 내생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력을 하세요. 그럴 때 만약 이게 될까 안될까 언제쯤 될까 하고 많은 이유가 붙고 생각이 붙으면 금반지가 무쇠가 붙어서 좋은 금반지가 못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급한 일로 부산에 가야 한다면, 꼭 가야 할 일이라면 무조건이지, 내가 가야 옳은가 가지 말아야 옳은가 또는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무슨 실수가 없을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겁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빌딩에 불



그림 · 최주현

세움도 되고,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주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산신의 보살도 되고, 지신의 보살도 되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화해서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야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다가 두번째는 좀 낫고 세번째는 좀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되구요. 큰된 적든 간에 내 앞에 닥친 일은 내가 대처를 하고 잘 안되면 잘 되게끔 돌리는 실천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 온 차원이

차원이 높아지죠. 차원이 높아지면 스스로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융통성 있는 마음이 돼서 여기 저기 다 지체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중요한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을 한다든지 쓸데 없는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지는 마시란 얘깁니다. 그러나 꼭 뒤를 연구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아무리 하찮은 생각이라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아내와 한마음 되지 않아요

저는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마흔을 바

는 것도 착이거든요. 그걸 다 놓으시고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으시면 스스로 돼요.

천지만물 사랑한다는 뜻

언젠가 단전호흡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산책하던 중에 어떤 분이 소나무의 기를 베어와 소나무를 죽이는 걸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화분의 나무를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너에게 기를 주지 못할랑정 어찌 너에게서 빼앗겼는가?' 하며 몸을 졸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기운이 락 밀려와서 그 나무한테로 물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천지만물 사랑이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기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참나할나 나무는 일이지요. 이 작용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의해서 들고 나는 일인데 굳이 따로 기를 얻었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나무도 사람에게 있어서 체나 마찬가지로요. 소나무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통할 것 그대로 보여준 거죠. 물결 정으로 이 체를 가지고는 돌이 한테 붙을 수가 없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항상 들고 나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 다 모든 것을 일임한다던 즉 쉽게 말해서 원자재가 놓으면 일차에서 수어의 입자로 화해서 조절을 하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엄청난 공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차원이 높아지면 허공의 에너지도 꺼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차원이 높지 못하면 꺼낼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신계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신계를 물리치고 다 광개치고 딴 형상에다가 받고 기도하고 그러잖습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자기로부터 소중한 게 있는 거지, 자기가 있는데 무슨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르는 나로부터 알게 되고, 알아서 가게 되면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되는지 분간 안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험이 미약해서 도대체 공부가 안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잘

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뿌리를 못 믿습니까?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으면 나무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희망 주고싶어요

르스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를 알고 공부하면서 매일 몇번씩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행려병동 등에서 환자들에게 간병도 하고 위문도 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에서 목사님도 오시는데 전 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으로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불교계에서 오시면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쾌유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환자분들이 다음 생애는 건강한 몸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관해주고 싶습니다. 만 어떻게 해야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준다면 해준다면 어디로 가더라도 통틀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깥으로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애가래 주세요. 불성 풍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체가 있고 나로부터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일깨워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따로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런다면 항상 물로 보는 마음이 생겨서 안되죠. 하나로 계합이 될 수가 없는 동시에 통 하나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너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가, 자기 자신 안에 보배를 두어도 남에게 빌어와서 거저로만 살아가 이런 거야 뭐 다름이냐? 그러나 그 사람한테 이득하게 하려면 무조건 당신 마음 안에 주체가 있으니까 멀리서 주님을 따로 찾지 말고 일러주십시오. 또 불자들도 당신 마음 안에서 부처도 있고 안자보살이 있으니 그 안에서 끌어다 쓰라고 달래 주십시오.

세상 일이 수레바퀴 돌 듯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진리죠. 밥을 먹고 또 먹고, 잠을 자고 또 자고,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부모로 끊임없이 돌고 돌죠. 우리가 머리끄덩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명초라하고 해서 나오는 대로 잘라버리죠. 예전에 원효대사는 실총이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으니 그 위에 낙엽을 뿌려놓고, 말갈게 쓸어놓으면 또 뿌리고 그러셨거든요. 바로 끊임없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죠.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는 이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역시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고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는 것이 세상 진리라는 걸 가르치셨던 거죠.

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불사를 한다는 것이 꼭 끝까지 갖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도 불사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곧 회향을 하는 것이 불사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내 할 일을 두고 멀리 있는 일을 걱정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길을 가다 배고픈 사람 외면하고 법당에 부처님께 공양올리겠다고 뛰어온다면 산 부처는 이미 죽어버리는 게 공양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한 마리 보더라도 마음 내주고 바로 내 옆에 산 부처님들부터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린 것도 붙일 수 있고 패어진 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원력이 벌써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자기 마음 안에 한생각에 달려있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나가기 바랍니다.

“자기 있기에 세상있으니 나를 알아야합니다” “상대보고 따라오라 하기전 나부터 달라져야”

이 나면 그냥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다른 공리가 나겠습니까? 죽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식들을 죽 앓았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숨이 끊어지게 생겼을 때는 자식이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자식이나 하는 것도 숨이 붙어있고 살 때 얘기지 죽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이라는 건 자기 선전의 구멍밖에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죠.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부터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다 하는 것도 그 마음이 통해서 서산대사가 새가 됐으니 그 새가 자기가 알고 싶은대로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는 전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또 사대로 통신이 되죠.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응신이 될 때에 지장도 되고 관

있어서 그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다 녹아지지 차원이 좁은대로 그냥 있으면 그게 아무리 되게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안되게 돼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된다' 소립니다. 열심히 하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달리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입력했다고 믿으면 입력한 대로 나오겠지 하고 믿고 편안히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얼마전 어느 신도 얘기가 자식이 삼수를 했다는데 가만 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착을 떼지 영혼을 하고 싶단 얘깁니다. 그래서 막 아단을 쳤죠. 왜 그렇게 붙들어서 학교에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그 착 페는라고 혼냈어요. 다 때고 나니까 붙였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착을 두면 오 히려 자기와 더불어 꼭 붙들어서 자기 근원이 자기 영혼을 하고 싶단 얘깁니다. 그러니 붙들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냥 놔 보세요. 마음이 풀이 아니니까 다 전원이 돼서 집나갔던 자식도 돌아오게 되죠. 여자나 남자나 똑 같아요. 모습은 여자나 남자나 있지만 마음이야 어찌 여자 남자가 따로 있으리까. 그렇게 물리가 터져서 지체로와지면

라보는 나이인데도 아내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행을 잘 하면서 권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못 따라가서 스님께 죄송스럽구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안 따라주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일도 강제로 하면 부러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더러 날 따라오라 하기 이전에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못느끼다가 어느날 '아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나.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먼저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먼저 따뜻해지고 먼저 녹아지면 붉은 녹듯이 사라지고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따로 보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이 이러니까 상대의 마음도 돌이 안지 하고 믿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거리를 두지 마세요. 나를 안 따라온다 하는 거 리감 말이에요.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하

못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되죠. 이 공부는 공부를 하는나 안하는나 이런 것도 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생활이 바로 교재이며 공부길에 들어선 겁니다. 인생공부죠. 지금도 여러 가지들 겪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뭘 내가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합니까. 사실 나의 영원한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종교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공부가 되는가 안되는가 의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피고 있는가 이런다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다. 나무들이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필까?'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여

한마음